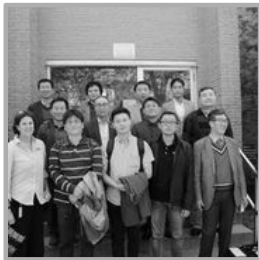


2014 미국 대두 국제 무역 교류 컨퍼런스 참관기



김 채 속
본회 총무부 차장



미국대두협회 초청으로 지난 2014년 9월 15일에서 9월 18일까지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2014 미국 대두 국제 무역 교류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대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써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 행사마다 '미국 중서부 특화 작물 컨퍼런스 & 무역 박람회'가 공동으로 열리고 있다. 특히 '미국 중서부 특화 작물 컨퍼런스 & 무역 박람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국제 행사로 미국중서부화주협회가 주최하고 있다.

미국대두협회와 미국중서부화주협회는 연중으로 열리는 공동 국제 행사를 통하여 미국산 대두 및 그 부산물의 수요를 촉진하고 이들 원료를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그 품질과 가치를 홍보함과 아울

러, 미국 중서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대두 및 그 부산물의 국내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운송 시스템을 소개하고 향후의 전망 등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24개국에서 270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 대부분은 대두 생산자, 공급업자, 트레이딩 업체, 수입업자, 운송업자 이외에 분석전문가, 영양학자, 대학교수 등 대두 산업에 관련 있는 많은 분들로 구성되었다. 한국 시찰단으로는 사료회사와 한국사료협회, 한국연두부식품조합연합회의 주요 구매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대두협회 한국지회 임직원들이 함께 동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 시찰단은 많은 생산자, 공급업자 및 트레이더들과 정보 교류 및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미팅을 가졌으며, 서로간의 비즈니스 향상과 교역 확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 농산물인 대두와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위스콘신주의 최

대 상공업 도시이자 항구 거점도시로 농산물을 비롯한 석탄의 적출량이 많은 밀워키에서 이번 행사가 개최되고 직접 참가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또한 공동으로 국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많은 주제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대두산업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면 관계상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주요 쟁점 사항들을 요약하여 언급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되어, '2014 미국 대두 국제 무역 컨퍼런스'의 주요 일정과 내용 등을 간략히 살펴본다.

■ 행사 일정

제1일차(9/15)에는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청 행정관이신 Phil Karsting씨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식전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24개국에서 온 시찰단과의 리셉션을 통해 참가자들 간 상호 정보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제2일차(9/16) 오전에는 미국대두협회 주최로 대두 및 그 부산물(대두박)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으며, 상호간의 정보 교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주최 측인 미국대두협회와 미국 증서부화주협회 대표자들 및 위스콘신 농업부 장관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세계 대두 및 곡물 시장의 수급-2014



년도 곡물 생산 및 교역의 상황 및 전망'에 대하여 The Hightower Report社의 David Hightower씨가 발표하였다. 뒤이어 '세계 식품산업 및 농업에 있어서 리더십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Agri-Pulse誌의 Sara Wyant씨가 좌장을 맡았으며, 벨기에 COCERAL Teresa Babuscio 박사, 베네수엘라 사료제조자협회인 AFACA 부회장인 Mariela Urguia씨 및 미국대두협회 이사인 Laura Foell씨가 토론을 펼쳤다.

제3일차(9/17) 오전에는 첫 주제로 '세계 경제, 무역, 운송 및 운송 인프라 발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Moffat & Nichol社의 Walter Kemmsies 박사가 발표하였다. 오전 두 번째 주제로 '미북부 식용 곡물 생산-미 북서부산 곡물 및 식품품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Food Export-Midwest社 대표 Tim Hamilton씨가 좌장을 맡았으며, 위스콘신 농무부의 Jen Pino Gallagher씨, 미네소타 농무부 Charlie Poster씨, 노스다코타 농무부 Erin Markestad씨가 토론을 펼쳤다. 오전 세 번째 주제로 '2015-2020 세계 양돈 및 가금 생산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AVIMEAL, LLC의 Miguel Escobar씨가 좌장을 맡았으며, Poultry Perspective社의

Paul Aho 박사 및 Informa Economics社 부사장 Rick Anderson씨가 토론을 펼쳤다. 오전 네 번째 주제로 ‘대두 운송비용 경쟁에 대한 새 연구 결과-미국 및 남미에서 세계 주요 시장까지’로 대두운송연합회(Soy Transportation Coalition) 대표 Mike Steenhoek씨가 발표하였다. 오전 다섯 번째 주제로 ‘대두 식품과 21세기 필요 영양소’에 대하여 Soy Nutrition Institute의 Mark Messina 박사가 발표하였다. 오전 여섯 번째 주제로 ‘동물사료 영양학에 있어서 대두의 가치 및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미국대두수출협회 Drew Klein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Mishek社의 Peter Mishek씨와 미네소타 대학의 Seth Naeve 박사가 토론을 펼쳤다. 오전 마지막 주제로 ‘대두 및 곡물의 국내외 철로 운송 전망’에 대하여 캔사스 주립대 Jay O'neil씨가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첫 번째 주제로 “미국의 대두 식품 품질 보존 전망”에 대하여 Zeeland Farm Service社의 Darwin Rader씨와 Delong社의 Austin DeLong씨, Knewtson Soy Products社의 Wayne Knewtson씨, S.B.&B.Foods社의 Bob Sinner씨가 발표하였다. 오후 두 번째 주제로 “세계 양어 및 낙농 산업의 성장

과 대두 수요의 영향”에 대하여 Global Aquaculture Alliance社의 George Chamberlain 박사와 위스콘신 대학의 낙농 영양학과 Louis Armentano 박사가 발표하였다. 오후 세 번째 주제로 “가금 분야에서의 대두 가치와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Auburn 대학교의 William Dozier 박사가 발표하였다. 오후 네 번째 주제로 “국제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컨테이너 및 벌크 운송 전망 - 세계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공급망의 강화”에 대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바, Journal of Commerce社의 Bill Mongelluzzo씨가 좌장을 맡았으며, 캔사스 주립대의 Jay O'Neil씨와 Orient Overseas Lines社의 Ed Zaninelli씨가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 주제로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과 가공품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Field-to-Market社의 Rod Snyder씨가 발표하였다.

제4일차(9/18)에는 마지막 날로 남부 위스콘신 투어를 하였으며, CASE IH Global 본사, Miller-Coors Brewery社, Global Water Center 등을 방문하였다.

■ 주요 내용

이번 행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써 세계 대두 시장의 수급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전망이 다루어졌다. 올해 대두의 세계 생산량은 역대 최고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잉여 재고 증가에



따라 기말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대두 생산량의 34% 이상을 점유하는 최대 생산국인 미국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잉여 재고 증가에 따라 기말 재고량은 2006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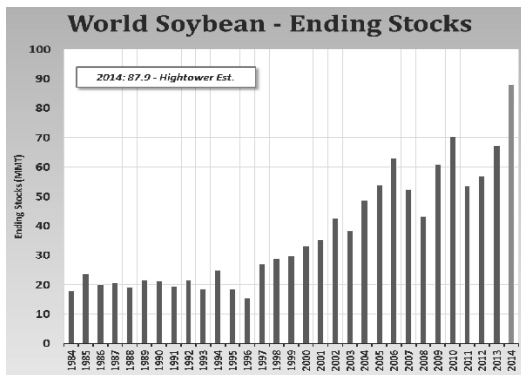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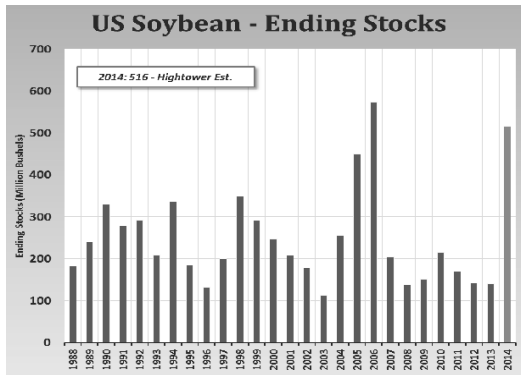
세계 대두의 소비에 있어서 착유용 대두 소비량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종자용과 산업용으로 소비된다. 교역에 있어서도 주요 생산국인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체 수출량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수요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두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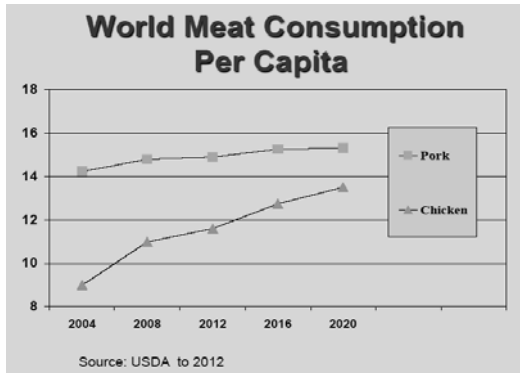
특히 중국의 경우 쿠키 오일을 이용하는 음식 문화로 인하여 대두에 대한 수요량이 커 전체 수입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변화와 주요 수입국의 수요량 변화에 따라 세계 대두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세계 대두 가격의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올해 5월 이후 9월 현재까지의 급격한 국제 대두 가격의 하락세는 전반적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나, 향후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반등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성장과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계 대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의 소득과 육류 소비 및 대두 수요간의 상관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인구 증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그에 따른 세계 대두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대두의 재배지역 확대 및 생산성 증대가 큰 문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편타메털적인 수급 상황이 이외에 거시 경제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되었는바, 현재의 세계 경제 침체의 지속 상황은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유럽의 부채 위기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나,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





어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경제권의 경제성장과 투자 확대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들 국가의 상품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관심사인 세계 대두 시장에서 이들 국가의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대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배 농가 확대, 기술 발전, 물류 인프라 개선, 저장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계 인구 증가 전망에 따른 식량의 위기 문제 역시 거론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식물성 단백질 소비의 증가에 대비한 대두산업에서의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음을 간파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의 영양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 바, 대두 단백질의 영양학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대두 단백질은 높은 소화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조성가가 기타 식물성 단백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품질의 대두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동

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대두의 효율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밖에 대두의 세계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의 문제에 대한 주제도 다루어졌다. 특히 최대 대두 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물류 시스템에 대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물류비 상승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곡류의 70%가 내수로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설의 노후화가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운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반하여, 브라질의 경우 열악한 운송 및 물류 인프라로 인하여 미국산에 비해 운송비용이 3% 이상 높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미국에 뒤처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대두 수출 전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한 운송 루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 비용 절감에 따른 브라질산 대두 및 가공 부산물이 미국에 비해 가격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파악이 되는 바, 미국 내에서 곡류 수출을 위한 물류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파나마 운하를 통한 곡물 및 유지 작물의 운송은 2020/21년까지 현재 보다 3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파나마 운하의 이용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 주제들 중에 특별한 이슈로써 어필을 하는 내용의 주제가 있어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한다. 다른 아닌 그 주제는 ‘세계 식품 산업 및 농업에서 리더십의 변화’이며, 주된 내용으로 농식품 산업에 있어서 여성의 권위 신장과 배타적인 남성 우위의 사고 탈피, 여성 특유의 리더십을 통한 세계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이 다루어졌다.

이번 박람회에 한국 시찰단의 일원 중 주 최 측 동행자를 제외한 유일한 홍일점으로

참가하면서 다시 한번 농식품 산업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농식품 산업에 많은 여성분들이 진출하여 그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박람회를 주최한 미국대두협회와 미국중서부화주협회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이번 한국시찰단을 꾸려 직접 행보에 나선 미국대두협회 조세영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앞으로도 대두 및 대두 가공 산업에 있어서 한·미간의 우호 증진과 비즈니스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 ☞

